

이용섭 “시민의 뜻 받들어 결초보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이용섭(66)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시민의 뜻을 받들어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혀 시장출마를 시사했다.

또 출마 여부는 이르면 1월 중순,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결정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지역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무한사랑을 받아온 만큼 반드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은혜를 갚는 결초보은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무한사랑’은 두 번의 정장(국세정장, 관세정장), 두 번의 장관(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 두 번의 국회의원(18, 19대)을, 시

광주시장선거 출마 시사...내달 초까지 결정

“8번의 여론조사, 일관되게 압도적 지지 눈물”

민의 뜻’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실시된 8번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1위를 차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8번의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압도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준 데 대해 눈물이 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 1위를 ‘시민의 부름’으로도 해석했다.

201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낙선한 것을 두고도 “성찰과 함께 정치인으로서 한층 성숙해지는 고마운 기회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출마 또는 불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1월2초(1월 말 또는 2월

초)를 제시했다.

1월 중순께 청년일자리 대책을 골자로 한 일자리위원회의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등록 신청일인 2월13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두루 감안한 정무적 판단으로 읽힌다.

이 부위원장은 “경선 전까지는 주어진 임무, 국가적 책무에 전념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본다. 특히 1월에는 정년일자리 대책 수립에 매진하며, 틈틈이 주말을 이용해 강연도 하고 시민들과 만나 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지역 내 선거 열기를 “더소 과열됐다”고 진단했다. 1년 전부터 출마예정자들이 불릴 활동을 하고, 공직이 요동치고 정세가 술렁이는 것을 두고 “비정상이 정상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지금은 (출마를 최종 결정할) 때가 아니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이어 “중앙에서의 역할론과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놓고 고민이 많다”고 운을 뗀 뒤 “각계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나의) 쓰임새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20%대 중후반의 박스권에 묶여 있는 지지율에 대해 그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무응답층이 30% 안팎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지율은 40%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고 지지율 정제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분석을 반박했다.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



국민의당 안철수(가운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7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 강화다”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우 최고위원, 안 대표, 장진영 최고위원. 이날 국민의당 백드롭은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라는 문구와 하나의 달걀에 두 개의 노른자가 있는 생란 이미지로 바뀌었다.

희초리→매수건→쌍란

국민의당, 백드롭 교체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박인춘 세번째 작품

국민의당이 무술년 새해를 맞은 3일 당 대표실 대형 뒷걸개(백드롭)를 기존 매수건에서 쌍란으로 교체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새 백드롭을 처음 선보였다.

새 백드롭에는 하나의 계란에 노른자가 두 개 들어있는 ‘쌍란’ 이미지가 담겼다. 그림 위에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이 두 배가 될 때까지’라는 문구가 적혔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1월 박인춘 전 화이트커뮤니케이션 대표를 당 홍보위원장으로 영입하면서 ‘국민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초기에는 희초리 사진과 함께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란 문구를, 다음에는 매수건 이미지

와 ‘국민의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라는 내용을 내걸은 바 있다.

박인춘 홍보위원장은 ‘국민의 당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노른자 두 개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당이 추구해야 할 것은 국민의 행복이다. 국민 행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비로소 현재의 통합, 분열 과열 현상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이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쌍란은 1000 분의 1 정도 확률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당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기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새해에는 당내외의 화합을 위해 더 많이 찾아뵙고 계속해서 설득하는 노력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원희룡 “한국당 복당은 앞서 나간 얘기”

“합당, 지켜보고 있어”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3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은 앞서 나가는 얘기”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M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앞으론 원희룡의 정치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불론 혁신을 하고 바깥으로는 확장을 해야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그런 근본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의문을 갖고 있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게 아직 최종적인 모습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바른정당, 통합 지도체제 놓고 잡음

‘손학규 비토’ 기류도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의 통합 후 새 지도체제를 어떻게 꾸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손학규 국민의당 고문이 통합정당의 새 사령탑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당 내부에서 비토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상욱 의원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내부 갈등을 노출시켰다. 지 의원은 “오늘 당사자가 계시니 공개적으로 발언했던 것에 대해 여쭙겠다. 최근 모 라디오 방송에서 하 최고위원이...”라며 운을 폈다.

그러자 유승민 대표가 이를 저지하며 “(그 발언은) 비공개로 하자”고 얘기를 끊었다.

공개 회의에서 일어난 이같은 해프닝은 하 최고위원이 언론 등을 통해 통합당의 대표 후보로 손 고문을 언급한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 최고위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 의원 건은 손 고문일 때문”이라며 “제가 손 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러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도체제를 구성할 때 손 고문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는 말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건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봐달라. 당의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의원의 자율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뒤이어 회의장에서 나온 지 의원은 “비공개에서 한 얘기는 노코멘트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 최고위원은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는 일선에서 물러나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손(손학규 고문)과 하 씨가 (통합당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합 논의가 이제 막 본격화한 시점에 벌써부터 지도체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이제 통합 추진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벌써 지도체제 얘기를 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런 건 전당대회를 하고 신당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될 때나 나올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최고위에서는 (손 고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으니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김종대 의원, 강은미 부대표, 정화중 광주시당위원장이 새해 첫 지역 행보로 광주를 찾아 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호남 배신-대권 뺏다방” 맹비난

지도부 광주 방문

정의당 지도부가 새해 첫 지역행보로 광주를 찾아 5·18 묘지에 참배하고 “정의당을 광주와 호남의 대안 정당으로 키워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에 대해서는 “배신의 날벼락”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는 3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남북 화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민생경제 행기기를 주문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선 뺏다방”, “배신의 날벼락” 등을 언급하며 날선 비

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바른정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대화를 당 차원에서 거부하는 등 남북 문제 만큼은 자유한국당과 차이가 없음에도 국민의당이 통합을 강행한다면 이는 김대중정신을 잊겠다던 국민의당을 믿고 선택했던 호남과 광주 시민들에게는 배신의 날벼락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넓은 양당 체제를 부수기 위해, 개혁과 견제의 도구로 선택받은 정당이 자신의 정체성조차 배신하고 배권가도를 위한 뺏다방”으로 전락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 지난 총선에서 호남의 선택, 호남이 요구한 한국정치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맹비난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